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을 :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며,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 ① 갑 :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② 갑 : 윤리학은 도덕적 진술에 사용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 ③ 을 :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④ 을 :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 과정에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탐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을 위한 근본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이러한 갈등의 제거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접근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도달하기 힘든 이상이다.

—<보 기>—

- ㄱ. 집단 내 개인들 간의 갈등은 도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 ㄴ. 개인의 이타심은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지하기 어렵다.
- ㄷ. 집단들 간의 관계는 집단 간의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 ㄹ.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강제력은 다다익선의 원리를 따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의 본질은 시민의 의사가 공적 영역의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데 있다. 즉, 시민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 의사소통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① 담론 참여자들을 일부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한정하는 것은 그르다.
- ② 발언에 대한 자유로운 이의제기는 담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 ③ 담론 참여자들은 담론 결과 비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 ④ 일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는 보편적 규범 도출의 충분조건이다.
- ⑤ 토론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선호 표현에 자유로워야 한다.

4.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된다.

—<사례>—

연구원 A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기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할지, 아니면 동물이 받을 고통을 고려해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정언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 ②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산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함을 기억하세요.
- ③ 동물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④ 어떠한 경우에도 동물 실험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⑤ 유덕한 행위자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숙고해 보세요.

5.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가) : 시민 불복종은 전체 유권자에게 다수의 정의감을 근거로 법이나 정부 정책이 부정의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 (나)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한다.

—<보 기>—

- ㄱ. (가) :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이지만 비도덕적인 정치 활동이다.
- ㄴ. (가) : 시민 불복종은 기존 정치 체제의 변혁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 ㄷ. (나) : 시민 불복종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ㄹ. (가), (나) :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민주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시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악(樂)은 천지의 조화이고, 예(禮)는 천지의 질서이다. 선왕은 슬픔이 있으면 예로써 슬퍼하고 큰 복이 있으면 예로써 즐거워했다. 또한 악은 성인이 즐겨하던 것으로, 이를 가지고 민심을 선하게 하고 백성들을 깊이 감동시켰다.
 을 : 백성들에게는 굶주리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 추위에 떠는 사람이 입지 못하는 것, 고생한 사람이 쉬지 못하는 것의 세 가지 걱정이 있다. 그럼에도 종을 키고 복을 두드리며 춤을 춘다며 백성들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악(樂)은 그르다.

- ① 음악은 백성들 간의 화합과 조화에 기여해야 하는가?
- ② 음악은 음악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가?
- ③ 음악은 인격 수양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 ④ 음악은 백성들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에 해로움만을 줄 뿐인가?
- ⑤ 음악의 반복적인 향유를 통해 감각적 쾌락이 증진될 수 있는가?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勞心)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힘을 수고롭게(勞力)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의 힘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을 : 국가의 수호자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사유 재산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 ① 갑 :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자유는 사회 정의 실현과 무관하다.
- ② 갑 :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은 구분되지만 상호 보완적이다.
- ③ 을 :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공통된 덕이 존재한다.
- ④ 을 : 후천적으로 학습된 기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 ⑤ 갑, 을 : 정의 실현을 위해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을 없앨 필요는 없다.

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설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홀로 서고자 한다면 모두 무너지게 된다. 결국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는 것이다.

- ①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 ②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佛性)이 반드시 존재한다.
- ③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④ 인간은 무명과 애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한다.
- 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고통을 연민하는 자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을 : 순전한 이성에 의해 판단하면 인간은 통상 순전히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주체에 대한 의무는 이 주체의 의지에 의한 도덕적 강요이기 때문이다. 병 :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모두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적 관심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은 살아 있는 유기체가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목적 추구 능력이다.
(나)	

<보 기>

ㄱ. A : 이성을 결여한 존재는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ㄴ. B :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ㄷ. C :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ㄹ. D :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다음 사상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전통 윤리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과 격률은 행위의 직접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인간적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하라.”

학생	학생				
	갑	을	병	정	무
책임져야 하는 당위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V	V		V
현재 실존하지 않는 존재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V	V			V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기존의 책임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V	V		V	
현세대에게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1.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나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을 :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이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또는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는 것이다.

(나)

<보 기>

ㄱ. A : 선천적인 사회적 지위의 불균등한 분포 형태는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가?
 ㄴ. B :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 개선의 명목으로만 제한될 수 있는가?
 ㄷ. C : 재화의 최초 취득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옳는가?
 ㄹ. C :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을 : 상호 간의 동의가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성적 관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한 경우라면 정당화된다.

- ① 갑 : 성은 생식적 가치를 중시할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② 갑 : 강제적 압력에 의한 성적 관계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③ 을 : 성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을 : 사랑을 통한 인격의 고양은 성적 관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⑤ 갑, 을 : 성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요구되는 도덕적 제약이 존재한다.

13.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시민 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에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여 상호 신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인격에 양도하게 된다.
 을 :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주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이다.

- 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국가는 분립된 권력을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간과한다.
 ③ 국가는 절대 군주가 아닌 다수의 대표에 의해 운영됨을 간과한다.
 ④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 과정을 거쳐 형성됨을 간과한다.
 ⑤ 국가 없이는 누구도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 죽음은 그때마다 현존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존재 가능성이다. 현존재 자신은 죽음과 함께 자기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성에 있어서 자기에게 다급하게 다가선다.
 을 :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갑 :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워질 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
 ② 갑 :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의 실존 가능성에 대한 성찰을 촉진한다.
 ③ 을 : 죽음 이후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은 치명적인 자만이다.
 ④ 을 :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 감각들은 죽음 이후에 완전히 소멸된다.
 ⑤ 갑, 을 :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한다.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생성은 빈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의미의 정보 유통은 불가능에 가까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보 기>

ㄱ. 지식과 정보의 사유화를 통해 기술의 진보를 유도할 수 있다.
 ㄴ. 지식과 정보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경험이 담긴 보편적 자산이다.
 ㄷ. 정보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정보 생산이 촉진된다.
 ㄹ. 저작물에 대한 과도한 권리 행사는 새로운 창작의 걸림돌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고,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을 확보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더불어 과학 기술의 연구 목적을 설정할 때는 가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 기술은 단지 사실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의 어떠한 과정에서도 연구자의 주관과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을: 아닙니다. 과학 기술의 정당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지만, 연구 목적 설정 과정에서는 인간 존엄성 달성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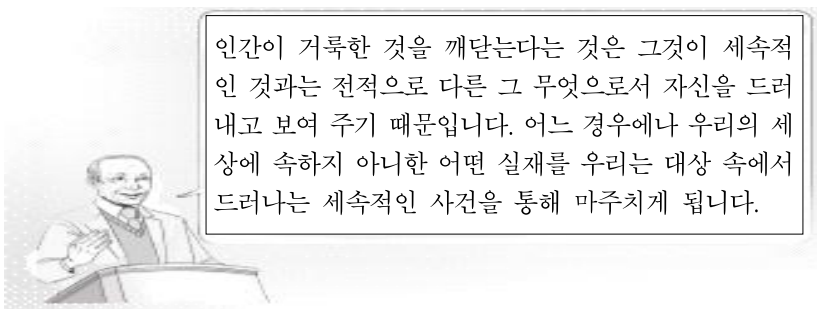
- ① 과학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은 사회 이익 증진에 방해가 되는가?
- ② 과학 기술의 정당화 과정에서는 가치 판단의 개입이 필요한가?
- ③ 과학 기술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며 연구에 임해야 하는가?
- ④ 과학 기술 연구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단계가 존재하는가?
- ⑤ 과학 기술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적 비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가?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최소 국가는 정당화되며,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을: 어려운 처지의 국가를 돕는 행위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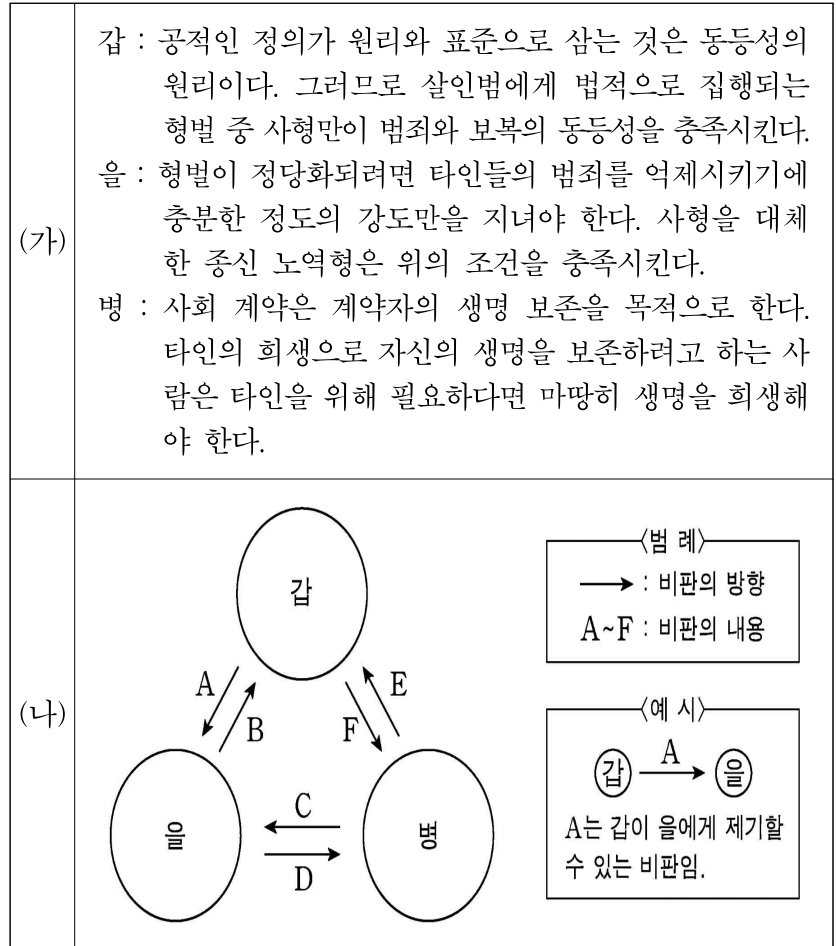
- ① 갑: 원조 활동을 통해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평준화해야 한다.
- ② 갑: 원조의 윤리적 측면과 당위적 측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부유한 국가에 거주하는 빈민들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을: 원조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의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 제도와 구조의 신속한 개선이다.

1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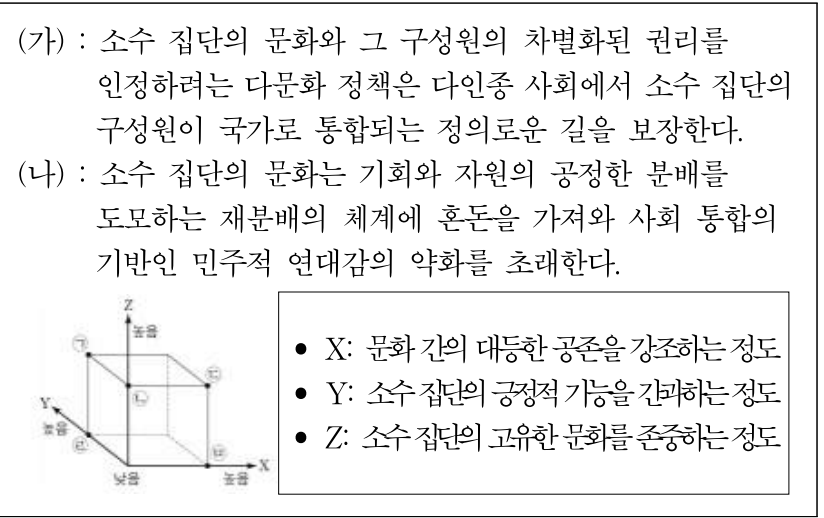
- ① 스스로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
- ② 인간은 종교적 존재로서 세속과 분리된 채로 종교 생활을 실천한다.
- ③ 신은 합리적 이해를 넘어선 직관이나 체험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 ④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종교로의 발전이 가능해진다.
- ⑤ 인간은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갈망하는 종교적인 존재이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선포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② B: 형벌은 시민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을 의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E: 생명 보존을 위해 사형 제도는 유지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은 명시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시민 안전의 확보는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